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기업 발굴

100억 규모...내일 기업설명회 펀드 운영사, 투자후보군 선정 현장실사 진행 최종 결정

광주시는 오는 23일 오후 1시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사와 광주 내 유망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청년창업펀드 설명회와 투자를 희망하는 12개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9월 결성된 광주청년창업펀드는 국비 60억원, 시비 20억원 등 1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투자대상은 광주지역 기업이며, 대표가 만 39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임직원이 50% 이상인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이다.

펀드 운영사인 콜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이하 콜리지)는 중앙부처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수백억원 규모의 펀드를 운

영하는 스타트업 전문 벤처캐피탈이다. 콜리지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경영컨설팅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콜리지 권혁태 대표를 포함한 4~5명의 전문 투자전문가가 광주를 찾아 지역 내 유망스타트업과의 만남의 장을 연다.

이번 행사는 기존 모의 IR과 달리 실제적으로 펀드 유치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지역 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투자받기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접수 결과 27개 팀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기업 소개를 한다.

콜리지는 이번 기업소개 설명회를 통해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검토, 현장실사 등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과 투자 금액을 확정한다.

또 이날 투자희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조정경제혁신센터, 각 대학 보육센터 등 광주지역 창업지원기관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앞으로도 광주지역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광주청년창업펀드 투자를 받아 지역 대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업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청년창업펀드 운영뿐만 아니라 중앙 자금지원 프로그램 소개와 연계 등 다양한 투자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경중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광주청년창업펀드 결성으로 유망 청년창업기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역 청년창업기업 중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청년창업 생태계 구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전경.

광주환경공단 모범적 음식물관리 돋보이네

처리비용 전국 최저수준 사료·가스연료 재활용 연간 30억원 수익도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해 연간 30억원의 수익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비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돈도 버는 최고의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환경공단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최저 수준인 t당 4만5000원의 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민간업체 수수료의 반값(t당 9만5000원) 수준이며, 이 과정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연간 30억원의 수익도 냈다.

무엇보다도 현대화가 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광주환경공단의 성공적인 음식물 관리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광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1.6배 많다. 광주의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광주는 1인당 0.337kg으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0.285kg보다 0.052kg 많다.

광주지역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에서 공공음식물자원화



사료 생산 공정.

시설 2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광산구 본덕동에 위치한 제1음식물자원화시설과 서구 치평동에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다.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난 2007년 4월 준공돼 11년째 가동돼 하루 15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13년 6월에 준공돼 하루 300t을 처리하고 있다.

이들 광주환경공단의 시설에서 광주지역 내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평균 450t 처리하고 있으며 두 군데 모두 건조사료화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음식물쓰레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단미사료(單味飼料·사료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것)다. 단미사료는 병아리나 오리

의 먹이인 양계사료에 섞는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장된다. 현재 공단은 2016년 기준, 단미사료를 하루 평균 46t을 생산해 그동안 1만4559t을 사료 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원료는 민간업체에 판매돼 작년 기준 5억6000여 만 원의 수익이 창출됐다.

또 환경공단에서는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에 품질검사를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의뢰하고 있는데, 유해성분 항목에서는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의 결과를 얻었다.

특히 광주환경공단은 음식물쓰레기에서 빼낸 폐수와 각종 처리 과정에서 분리해 낸 폐수 등을 혐기성 소화조에서 발효시켜 폐수의 농도를 낮춘 후 이 과정에서 메탄을 생산해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메탄은 LNG가스의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가스(미생물 등을 사용해서 생산된 가스 상태의 연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난해 기준 7만1700㎡이 생산·재사용해 연간 24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음식물쓰레기 폐수 중에 포함된 유분을 분리기를 통해 처리한 뒤 2016년 기준, 539t의 유분을 민간업체에 판매해 수익을 내기도 했다.

안용훈 이사장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통해 광주환경공단의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했다”면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한 환경을 안겨주기 위해 자원순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속가능발전 종교계의 역할은...광주시·전남대 24일 토론회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완)와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소장 정봉현)는 지난 24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종교공동체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하면서 도시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종교계도 실천의 영역에 동참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임낙평 국제기후환경센터 대표이사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와 종교의 역할’, 박종렬 인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의 ‘지속가능한 도시와 카톨릭 교회의 역할’, 마지막 발제는 지속가능 도시발전을 위한 기독교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오은열 성결대 교수 등이 발제를 맡는다.

김병완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사전 배포된 자료집을 통해 “UN이 2015년 9월에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현재 전 세계의 화두이자 국가와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봉착한 기후변화와 도시문제에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을 포함한 대기, 수질, 토양, 자연

자원 및 생태계를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봉현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종교의 순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능이 절실하며, 종교공동체의 실천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종교공동체의 구성원들도 지속 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자료집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www.greeng21.or.kr)에서 24일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생사 넘는 구조현장 ‘광주 119 이야기’ 발간

전국 관련 학과·도서관 비치

생과 사가 오가는 구조구급 현장을 뛰는 소방관의 희로애락을 담은 책 ‘광주 119 이야기(사진)’가 발간됐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발간한 스토리북 ‘광주 119 이야기’에는 지난 8월부터 광주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토리텔링 공모의 입상작 16개 작품을 포함, 총 102개 음모작으로 생생한 체험담과 수기 등 소방공무원의 일상이 실렸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의 4가지 에피소드



로 난민 책에 담긴 구조현장에서 곤경에 처한 일, 아비규환 현장의 위험 앞에서 느낀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기억같은 구조 후 생존자를 만난 벅찬 감동의 순간, 팽목항 구급차량 지원에 나선 대원의 잊지 못할 이송의 시간, 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사지에서 돌아온

동료를 맞은 소방관의 바람, 소방관 업무를 벗어난 다양한 요청 등 길고 짧은 이야기들이 소방관들의 하루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에피소드마다 삽화와 사진을 함께 실어 보는 재미도 더했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출간된 책 중 일부를 전국에 있는 소방관련 학과와 도서관 등에 무상 보급하고, 소방서 민원실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은 “이 책에 실린 광주 소방관들의 애환과 감동과 아쉬움 등 102개 이야기가 소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현직 소방공무원과 가족,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거문도, 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